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카리브의 탈식민주의 사상: 데릭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 연구를 중심으로*

하영준

I. 머리말

이 연구는 데릭 월컷(Derek Walcott, 1930-2017)의 역사 희곡들, 『아이티 삼부작(Haitian Trilogy)』을 중심으로, 그가 아이티 혁명을 카리브 탈식민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에서 재현했는지 분석한다.¹⁾ 그리고 월컷의 작품을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1913-2008),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 1928-2011), C. L. R. 제임스(C. L. R. James, 1901-1989) 등 카리브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아이티 혁명을 다룬 희곡들과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월컷 개인의 사상은 물론 카리브의 탈식민주의 사상 및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데릭 월컷은 199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령 카리브 출신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영국계 백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어머니 사이에서 1930년 태어났다. 젊은 나이부터 시인이자 화가로 인정받은 그는 19살 나이 때 첫 희곡 『앙리 크리스토프(Henri Christophe: A Chronicle in Seven Scenes, 1949)』를 집필하여, 노예 출신 장군 크리스토프가 아이티 혁명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다뤘다. 이 작품은 1950년에 출간되었고 1952년 런던에서 공연되어 호평받았다. 월컷의 두 번째 희곡 『북과 색(Drums and Colours: An Epic Drama, 1958)』은 1958년 서인도 연방의 첫 의회 개회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6900).

1) Derek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lays: Henri Christophe, Drums and Colours, and the Haitian Ear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기념한 대중적인 야외극으로 제작되었다. 약 25년 후, 월컷은 세인트루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노예 해방 150주년을 기념하여, 아이티 혁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희곡 『아이티 대지(The Haitian Earth, 1984』를 1984년에 집필했다. 이 작품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혔으나, 월컷이 2002년 새로운 서문을 작성하고 『아이티 삼부작』으로 묶어 출간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월컷의 사상을 『아이티 삼부작』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 연구에 비해 많지 않지만, 국내에도 중요한 연구가 존재한다.²⁾ 그러나 현재까지 주로 월컷의 시와 관련된 문학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아이티 삼부작』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이티 혁명을 다룬 월컷의 희곡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잊혀 있었으며, 해외에서조차 최근에야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49년부터 1984년까지, 약 35년에 걸쳐 이어진 아이티 혁명에 대한 월컷의 지속된 재현은 카리브 지역의 탈식민화를 모색하고 국민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기억의 정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은 오랫동안 아이티의 노예 반란을 역사의 주변으로 밀어냈지만, 이러한 기억은 결코 망각되지 않았다. 카리브 지역의 흑인 지식인들은 다양한 문학 작품과 문화 활동을 통해 노예 반란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탈식민화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왔다.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에 관한 기존의 해외 연구는 월컷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공시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월컷의 문제의식이 카리브 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2) 이영철, 「데릭 월컷의 예술적 정체성 - 다민족·다문화의 시학 -」, 『현대영미시연구』, 14-2(2005), 61-86쪽; 이영철, 「데릭 월컷(Derek Wallcott)의 탈영웅적 시학 - 호모(Homer)의 서사적 영웅에 대한 『오메로스』(Omeros)의 전복적 관점」, 『현대영미시연구』, 14-2(2008), 103-123쪽; 이영철, 「데릭 월컷의 『후레자식의 귀향』과 칼립소」, 『현대영미시연구』, 11-1(2005), 119-142쪽; 이영철, 「데릭 월컷의 생태비평적 문제의식-카리브의 식민화된 자연과 역사-」, 『영어영문학연구』, 51-3(2009), 281-300쪽.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월컷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아이티 혁명을 다룬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사 방식과 내용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려 한다. 1949년, 1958년, 1984년에 각각 발표된 작품은 카리브 지역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월컷의 탈식민화 전망을 그 내용과 형식에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월컷의 인식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희곡 분석뿐만 아니라 1960~70년대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그의 저작도 참조한다.³⁾ 이러한 통시적이고 역동적 접근은 카리브의 탈식민화 전망과 국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월컷의 사상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월컷의 희곡을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다룬 글리상, 세제르, 제임스와 같은 흑인 급진주의 사상가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기존 흑인 지성사가 간과해 왔던 차이와 갈등에 관심을 둔다. 아이티 혁명의 기억은 오랜 시간 동안 반식민주의 운동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특히, 1960~70년대에 아프리카와 카리브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후 독재 체제로 전환되거나 쿠데타로 전복되는 상황에서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을 비롯해 글리상의 『무슈 투생(1961)』, 세제르의 『크리스토프왕의 비극(1963)』, 제임스의 『블랙자코뱅(1967)』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고 상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⁴⁾ 이들 작품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 독립 이후 카리브의 정치 상황을 반성하고, 새로운 탈식민화

3) Derek Walcott, "The Caribbean: Culture or Mimicry?",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16-1(1974), pp. 3-13; Derek Walcott, *What the Twilight Says: Essay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8); Derek Walcott, "In Middle Passage, The James Version" (review of *Black Jacobins*), *Sunday Guardian*, 6 August 1964; Derek Walcott, "A Tribute to C. L. R. James," in Selwyn R. Cudjoe & William E. Cain eds.,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5), pp. 34-48.

4) Aimé Césaire, (1961),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Aimé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Édouard Glissant, (1961).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Gallimard, 1988); C. L. R. James, (1967),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의 전망을 마련하려는 집단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서 모두가 같은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관점의 차이와 긴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비교는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서사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볼 수 있게 하고, 카리브의 탈식민화 전망과 관련하여 흑인 지성사 내에서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이 갖는 독특한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II. 『아이티 삼부작』의 서지 정보와 핵심 내용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을 특정 역사적 시기나 단계에 맞추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편의성과 자의성을 수반한다. 희곡이 완성되는 시점과 첫 공연이나 출판 시점 사이에는 때때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정확히 위치시키기 어렵다. 첫 공연이나 출간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공연이나 출판을 위해 작품을 수정한 때도 있어, 희곡의 역사성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희곡을 연대별로 분류하되, 각각의 희곡이 어떤 문제 공간과 주제 틀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

월컷의 첫 희곡인 『앙리 크리스토프』는 그가 19살이던 1949년, 쌍둥이 형제의 제안으로 창작했고, 어머니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1950년 출판했다.⁵⁾ 하지만, 이 초기 출판 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오직 바베이도스 애드보킷(Barbados Advocate)에서의 소규모 개인 인쇄와 서인도 대학 자메이카 모나(Jamaica, Mona) 캠퍼스에서 배포된 등사본 인쇄물만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⁶⁾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영향을 받았으며, 『햄릿』의 대사로 서문을 장식하고 있다. 월컷은 1949년 세인트루시아의 성 요셉 수녀원에서 이 희곡의 첫 공연을 연출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이 배역을 맡았다. 『앙리 크리스토프』는 에롤 힐(Errol Hill)이 1952년 런던에서 첫 공연을 연출하며, “진정한 서인도 드라마의 기초를 마련한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았다. 힐은 월컷의 작품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서인도 연극”이라고 칭송했다.

5)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3.

6) Paula Burnett. *Nobody's Nation: Reading Derek Walcot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 75.

해당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역사에서 1803년부터 1820년까지, 대략 17년간의 시기를 다루며, '일곱 장면의 연대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 연극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4개의 장, 두 번째 부분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극의 시작은 혁명 지도자 투생이 프랑스 원정대에 의해 체포되어 쥐라 감옥에 갇힌 1803년부터이다. 투생의 비참한 죽음 이후, 혁명 지도부 내의 불화와 정치적 혼란이 그려진다. 아이티 독립의 주역,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이 1804년 황제로 즉위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과,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페티옹(Alexandre S. Pétion)과 함께 1806년 데살린을 암살하고 나라가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된다. 크리스토프가 북부에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동안, 페티옹은 남부와 서부에서 몰라토와 자유 유색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국을 세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적 존엄과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가혹하게 동원한 크리스토프는 결국 반란으로 몰락하게 되고, 1820년 반란군이 그의 궁전을 공격할 때 자살함으로써 연극은 끝난다.

두 번째 희곡, 『복과 색』은 1958년 4월 25일, 트리니다드의 수도인 포트오브스페인에서 노엘 바스(Noel Vas)와 다그마르 버트(Dagmar Butt)의 연출로, 약 80명의 배우가 참여해 3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되었다.⁷⁾ 이 작품은 첫 서인도 연방 의회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당시 서인도 연방은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들의 독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인식되었다. 약 3시간에 걸친 이 야외극에서 아이티 혁명은 카리브 역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하지만 1961년에 〈카리브 쿼터리(Caribbean Quarterly)〉에 실린 첫 판본은 1958년의 공연 대본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월컷에 따르면, 이 차이는 카리브 역사의 일반적인 패턴-발견·정복·착취·반란·헌법상의 진보-을 주제별로 통합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연 대본의 특정 날짜와 사건들이 재정리되거나 변경되었고, 일부 장면은 삭제되었다. 또한, 몇몇 중요한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장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수정은 작품의 전달력을 강화하고 카리브 역사의 핵심 주제들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7)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p. 111-114.

『북과 색』은 카리브의 식민지 역사를 아우르는 웅장한 역사극이다. 이 작품은 카니발 축제에 참여한 보통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영웅적 인물들뿐만 아니라 대중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니발 축제의 합창단, 노래하고 춤추는 군중, 그리고 ‘마노’라 불리는 인기 있는 남성이 리더로 등장하며, 크리올(creole)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음악·춤·방언이 작품에 활용된다. 연극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리브 역사의 네 가지 주요 사건을 다룬다. 첫 장면은 1492년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섬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신화 속의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한 월터 롤리 경의 원정, 아이티의 노예 반란, 그리고 마지막은 1865년 영국령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모란트베이 반란(Morant Bay Rebellion)’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작품은 카리브 지역의 역사적 순간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있다.

연극은 영국 카리브 식민지들로 구성된 서인도 연방을 위해 제작되었음에도, 스페인과 프랑스 카리브 식민지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월컷이 카리브 역사에 대해 훨씬 폭넓게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연극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다뤄지는 지역은 영국령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바베이도스에 더해 히스파니올라섬, 프랑스령 생도밍, 스페인 산토도밍고 그리고 독립한 아이티를 포함한다. 특히 아이티 혁명 부분은 연극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아이티 부분은 프랑스의 원정대 지휘관 르클레르(Leclerc)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생도밍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크리스토프와 데살린이 투생을 프랑스 원정대에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투생이 자신의 전 주인 칼릭스-브레다(Calixte-Breda)와 만나, 노예 반란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연극 전체의 마지막 부분은 모란트베이 반란을 다루고 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는 자메이카 흑인 농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다가 처형된 조지 윌리엄 고든(George William Gordon)의 영웅적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희곡인 『아이티 대지』는 세인트루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노예 해방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월컷이 쓰고 직접 연출했다. 이 연극은 1984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공연되었다.⁸⁾ 연극은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

8)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297. 월컷의 고향인 세인트루시아는 1600

며, 첫 번째 막은 20개의 장, 두 번째 막은 1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컷은 1977년부터 이 희곡의 집필을 시작했으며, 텔레비전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염두에 두고 시각적 및 청각적 연출에 관한 세부적인 요소에 신경을 썼다. 짧은 장면들을 통해 시각적 수단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빠른 컷, 시공간의 도약, 몽타주 효과, 카메라 연출에 가까운 무대 연출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⁹⁾ 이 연극의 대본은 공연 당시 출간되지 않았으며, 월컷이 2002년에 『아이티 삼부작』을 출간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투생의 사망(1803년)에서 시작하는 『앙리 크리스토프』와는 달리, 『아이티 대지』는 아이티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인 1792년부터 크리스토프가 몰락하는 1820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아우른다. 월컷은 이 작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을 혁명의 핵심 인물로 묘사했다. 투생, 데살린, 크리스토프와 같은 혁명 영웅들의 잘 알려진 이야기와 더불어, 가상의 인물인 브레다 농장의 노예 폼페이(Pompey)와 르캅(Le Cap)의 몰라토 매춘부 예트(Yette)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아이티 흑인 농민들의 일상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월컷은 혁명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보다는 독립 이후에도 이어진 내전과 폭정을 버티며 강인하게 살아갔던 아이티 민중의 삶을 강조한다.

Ⅲ. 『아이티 삼부작』과 관련된 연구 쟁점

월컷은 앞에서 언급했듯 노벨문학상을 받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뛰어난 카리브 시인이자 극작가로, 그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작품들은 널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삼부작』은 그의 작품 중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해외에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문학적 분석에 기반한 공시적이고 정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연구는 세 희곡에서 나타나는 월컷의 일관된 사상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다. 크리지 본지

년대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 1814년부터 1979년 독립할 때까지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이다.

9) Edward Baugh, "Of Men and Heroes: Walcott and the Haitian Revolution," *Callaloo*, 28-1 (2005), pp. 52-53.

(Chris Bongie), 필립 카이사리(Philip J. Kaisary), 빅터 피게로아(Victor Figueroa) 등이 주요 연구자이다.

본지는 월컷의 연극에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열망보다는 폭력과 복수의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우울한 강조가 지배적이라고 평가한다.¹⁰⁾ 그리고 이러한 월컷의 시각에는 19세기 아이티 혁명사를 지배한 ‘물라토 전설 (Mulatto Legend)’의 이념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물라토 전설에 따르면, 투생이 사망한 후 아이티를 지배한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는 독재자이자 폭군으로, 아이티 정치 전통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대표한다. 반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했던 물라토 페티옹과 그의 후계자 부아예(Jean-Pierre Boyer)는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온화하고 문명화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물라토 전설은 당시 물라토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아이티의 정치 체제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지는 월컷의 연극이 이러한 이념적 편견을 반영하여, 아이티 독립 후 발생한 권력 투쟁, 내전, 강제 노동, 독재 체제의 등장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데살린과 크리스토프의 잘못으로 전적으로 돌리고, 페티옹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물라토인 월컷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연결하여 이러한 역사적 편향의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티 혁명과 크리스토프 체제를 열렬히 옹호한 물라토, 바론 드 바스테이(Baron de Vastey)의 논의를 통해 물라토 전설과 월컷의 인식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카이사리는 월컷의 연극에 대해 본지의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한다.¹¹⁾ 그는 월컷의 연극을 제임스와 세제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이티 혁명에 대한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시각과 대비한다. 월컷의 작품이 기술적 성취와 언어적 기교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사상적으로는 ‘비극의 주기적 반복’이라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월컷이 표현하

10) Chris Bongie, “Monotonies of History: Baron de Vastey and the Mulatto Legend of Derek Walcott’s Haitian Trilogy,” *Yale French Studies*, 107(2005), pp. 70-107.

11) Philip Kaisary & Mariana Past, “Haiti, Principle of hope: Parallels and Connections in the Works of C. L. R. James, Derek Walcott, Aimé Césaire, and Édouard Glissant,” *Atlantic Studies*, 17-2(2020), pp. 264-268; Philip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pp. 135-156.

는 역사와 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은 “백인과 흑인 모두 폭군이 될 수 있으며, 혁명은 타락할 수 있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신세계로 수송했지만, 이들을 붙잡아 팔았던 것은 아프리카인이었으며, 식민지 종속민도 권력을 잡게 되면 식민지 지배자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었다. 카이사리는 영웅에서 민중으로 월컷의 강조점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걸쳐 쓴 연극들에서 아이티 역사를 폭력과 억압의 끝없는 반복으로 보는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게로아는 월컷의 연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¹²⁾ 그는 ‘물라도 전설’과의 연결을 통한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월컷의 작품이 데살린과 크리스토프의 폭정을 고발함으로써 카리브 역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식민주의 담론이 흑인의 인간다움과 주체성 부정해 온 것에 맞서, 카리브의 반식민주의 세력은 투생이나 크리스토프와 같은 흑인 영웅들을 내세우는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영웅주의의 수사학”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티 혁명을 다른 세제르와 제임스의 연극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월컷은 아이티와 카리브 역사를 지배해 온 영웅 숭배의 권위주의와 맹목성을 비판하며, 이러한 반식민주의 수사학이 어떻게 배제와 억압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고발했다. 또한 피게로아는 월컷의 연극이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사건들을 재해석하여 카리브의 현실 정치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에 기반한 포용의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자들은 월컷의 연극에 대한 평가가 부정과 긍정으로 서로 대립하긴 하지만, 아이티 혁명을 바라보는 월컷의 관점이 40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즉, 월컷의 사상을 정태적이고 공식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보우(Edward Baugh)는 월컷의 연극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발전에 주목하며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¹³⁾ 비극적이고 장대한 영웅주의를 표현하는 월컷의 첫 번째 연극인 『앙리 크리스토프』에서 시작하여,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 투생을 통해 좀

12) Victor Figueroa, *Prophetic Vision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pp. 126-165.

13) Edward Baugh, *Derek Walco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7-70; Baugh, “Of Men and Heroes,” pp 45-54.

더 계몽적이고 이성적인 영웅주의를 보여주는 『복과 색』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웅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대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아이티 대지』에 이르기까지, 월컷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했다. 보우는 ‘아이티 삼부작’이 40년에 걸친 월컷의 예술적 성숙 과정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월컷은 왕과 왕이 될 사람들, 역사적 사건과 큰 야망을 품은 인물들로부터 점점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관심을 옮겨갔으며, 역사가 외면한 이들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중의 의식과 민속을 연극에 적극 녹여냈다.

이 연구는 보우와 마찬가지로 월컷의 연극이 담고 있는 변화와 발전에 주목하는 통시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그러나 『앙리 크리스토프』와 『아이티 대지』 사이의 차이를 단순히 ‘초기의 미성숙한 월컷 대 성숙한 후기 월컷’으로 나누거나, ‘유럽 스타일 모방에서의 탈피와 독창성으로의 발전’으로 보는 보우의 진화론적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는 월컷의 연극 각각을 다른 시대 배경과 문제의식을 지닌 독립된 작품으로 분석한다. 『앙리 크리스토프』와 『복과 색』은 카리브 제도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대 배경과 관련된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에서 등장했다면, 『아이티 대지』는 1960년대 아프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이 독립 후 겪은 위기와 곤경에서 비롯된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에서 비롯했다.¹⁴⁾ 이러한 문제 공간의 전환은 아이티 혁명에 대한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역사관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다. 본 연구는 제임스, 세제르, 글리상 등 카리브 지역의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작품과

14) 월컷의 연극을 분석하기 위해 카리브 탈식민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스콧이 제시한 ‘문제 공간(problem spaces)’ 개념을 활용한다. 이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문제 공간이란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 가능한 질문, 답변 및 이해의 범위를 의미하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지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들의 집합이다. 문제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역사적 사건이나 지식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기존의 질문들이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다. 스콧은 이 개념을 통해 특정 역사적 시기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적 대화와 담론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어떤 조건에서 특별한 이론적, 문화적, 정치적 프로젝트가 생겨나는지 탐구했다. 문제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담론이나 이론이 해당 시점에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했는지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다. David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 (Durham and London, 2004), pp. 3-7.

비교하며, 월컷의 연극이 보여주는 탈식민주의적 전환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성사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IV. 반식민주의와 영웅주의 저항 서사

월컷은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시인이자 문인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월컷보다 앞 세대인 영국령 카리브 출신 제임스는 월컷이 감탄하고 칭송했던 뛰어난 문학가였지만 마르크스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제 혁명가의 삶을 평생 살았다. 또한, 프랑스령 카리브 출신인 세제르와 글리상 역시 문학적 명성을 국제적으로 얻었지만,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세제르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저항 시인이자 극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마르티니크 국회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이었다. 글리상도 청년 시절 프랑스령 식민지의 해방과 카리브 연방 건설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 탄압을 받았고, 문학과 교육 활동에 전념했던 말년에도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 목소리를 냈다. 이와 비교하여 월컷은 직접적인 정치 활동과는 거리를 두고 문학 작품의 창작에 전체 삶을 집중했다. 그러나 『아이티 삼부작』 중 두 작품이 서인도 연방의 건설과 세인트루시아의 노예 해방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그 또한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서 카리브 탈식민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려는 강한 정치적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월컷의 첫 두 희곡은 카리브 독립 이전의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월컷이 『북과 색』에서 다룬 아이티 혁명과 자메이카의 모란트베이 반란은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제임스의 말을 빌리면, 노예제도에 맞서 싸운 흑인 노예의 주체적 행동에서 비롯된 아이티 혁명은 '자유를 향한 끝없는 열망'이라는 카리브의 국민성이 최초로 표현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모란트베이 반란은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던 영국령 자메이카의 흑인 주민들이 영국 식민 지배에 맞서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유럽 식민 제국과 지식인들의 반응은 주로 이들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축소하고 흑인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인종주의적 담론과 이론을 생산하는 데 집중되었다. 특히, 영국 식민 당국과 지식인들

은 카리브 주민의 자치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거부하고 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국민성과 역사성을 인종주의적으로 부인하는 논리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제국 지배의 인종주의적 정당화와 그리고 이에 맞선 반식민주의 투쟁 담론의 등장은 월컷의 첫 두 연극이 탄생한 문제공간의 담론적·이념적 틀을 형성했다.

1865년 10월에 일어난 모란트베이 반란은 자메이카 총독 에어(Edward Eyre)의 잔혹한 폭력으로 기억된다. 에어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메이카 자치 의회의 의원 고든을 포함한 흑인과 유색인 439명을 처형하고, 남녀 600명에게 태형을 가했으며, 천여 채의 가옥을 불태웠다.¹⁵⁾ 이러한 폭력적 진압은 영국 내에서 에어의 공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밀(John Stuart Mill)과 칼라일(Thomas Carlyle)의 논쟁을 촉발했다.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 ‘서인도(West Indies)’의 흑인이 영국 국민과 같은 법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인도의 흑인이 문명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국이 추구해야 할 국민적, 제국적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결국, 에어를 공권력의 남용으로 고발했던 밀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지한 칼라일의 입장이 영국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칼라일의 승리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영국 중간계급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liberal imperialism)’는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흑인을 교육하여 문명화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는 영국 중간계급의 이상주의는 19세기 말에 백인과 흑인 사이의 영구적인 차이와 우열 관계를 강조하는 인종주의적 보수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

칼라일은 밀과 함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중 지식인이었다.¹⁶⁾ 역사가로서 그의 저서 『영웅 숭배론(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1841)』은 상당한 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역사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보았으며, 영웅을 우주의 신성한 신비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해석자로 정의했다. 영웅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영웅의 모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15) Bernard Semmel. *Democracy versus Empire: The Jamaica Riots of 1965 and the Governor Eyre Controversy* (New York: Anchor Book, 1969)를 참조.

16) F. S. J. Ledgister, *Only West Indians: Creole Nationalism in the British West Indies* (Trenton, N. J.: Africa World Press, Inc., 2010), pp. 37-47.

다양했다. 칼라일은 역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인물들을 모두 영웅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사회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회 발전과 문화적 성과를 영웅들의 산물이라 보고, 대중은 본능적으로 영웅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세상이 가장 잘 질서 잡히고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칼라일의 영웅 사관은 인종적 위계질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인을 최상위 인종으로, 아프리카인을 최하위 인종으로 분류하는 인류 개념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흑인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며 백인을 섬기도록 태어났다고 믿었다. 칼라일은 백인의 지배와 흑인의 노동이 서로 보완적이며, 이러한 주종 관계가 서인도 제도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의 “자비로운 채찍” 아래에서 향신료, 설탕, 커피 등을 생산하는 것이 완벽한 사회 질서를 이루는 길이었다. 그는 나태하고 게으른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프랜시스 베이컨과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하면서 서인도 제도가 아이티와 같은 참혹한 상황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1880년대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들에서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영국은 지역 자치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왕정 식민지 형태로 카리브 제도를 오랫동안 통치했다. 따라서 일찍부터 소수의 백인 농장주와 상인이 식민 당국에 저항하면서 자치(의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협소한 인종적·계급적 이익만을 도모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예 해방 이후 식민지의 교육 제도를 통해 교사나 학자 같은 전문직을 획득한 흑인과 혼혈 중간계급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된다. 영국령 카리브의 흑인 중간계급은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전유하여 선거권 확대라는 민주화 요구와 함께 식민지 자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칼라일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근대사 교수인 프루드(James A. Froude)는 자신의 카리브 여행기, 『서인도 제도의 영국인 또는 울리시스의 활(The English in the West Indies, or The Bow of Ulysses, 1887)』을 통해 이런 요구에 반대하는 견해를 강하게 펼쳤다. 그는 흑인과 유색 인종은 열등한 존재로서 자치 능력이 없으며 백인·흑인·인도인·중국인과 같은 이주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카리브 사회는 단일한 국민을 형성할 수 없다는 인종주의 논리로 자치와 민주화 요구를 거

부했다.¹⁷⁾ 프루드에 따르면, 서인도의 흑인은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무질서하며,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따라서 외부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노예제도가 흑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주었다고 믿으며 서인도의 흑인이 “유럽의 법률, 교육, 권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백인의 지도와 통제 없이는 서인도 제도가 아프리카적 야만 상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프루드는 문명화와 진보를 위해서는 서인도에서 자치가 아닌 영국의 직접 통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국의 직접 통치만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잡탕의 카리브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문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었다, 프루드는 칼라일처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 후 아이티의 상황을 과장하면서 영국령 서인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인도 제도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영국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티와 같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그는 “서인도 제도에는...성인(saint)도 ...영웅도 없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곳에는 자신만의 성격과 목적을 가진 국민(people)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며 자신의 책을 마무리했다.¹⁸⁾

칼라일과 프루드의 영웅주의 식민 사관은 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카리브해 지역에서 반식민주의 저항 담론의 형태를 규정하는 담론적 및 이념적 틀을 마련했다.¹⁹⁾ 흑인 지식인들은 서인도의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영웅과 역사를 가졌으며 독립된 하나의 국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반식민주의 담론과 이론을 구축했다. 제임스가 1936년에 작성하고 런던에서 공연된 『투생 루베르튀르』와 1938년에 발표한 역사적 저서 『블랙 자코뱅: 투생 루베르튀르와 생도밍그 혁명』은 이러한 저항 담론의 구조를 잘 드러낸 사례이다.²⁰⁾ 그는 아이티 혁명을 지휘한 흑인 영웅 투생을 통해 “흑인이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할 수 있

17) Erick Williams, *British Historians and the West Indies* (New York: African Publishing Corporation, 1966), pp. 166-187.

18) James Anthony Froude, *The English in the West Indies, or The Bow of Ulysses*,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88), p. 337.

19)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p. 75-87; Richard Drayton, “The Problem of the Hero(ine) in Caribbean History,” *Small Axe*, 34(2011), pp. 26-45.

20)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C. L. R. 제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양사론』, 124(2015), 188-193쪽.

으며, 역사라는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 이러한 반식민주의 저항 담론의 문제의식은 흑인의 인간다움과 주체성을 아프리카와의 근원적 연결을 통해 옹호했던 프랑수아즈 마르티니크 출신 세제르의 서사시 『귀향 수첩(1936)』과 아이티 혁명을 다룬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19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에 월컷이 집필한 첫 희곡 『앙리 크리스토프』도 영웅주의 식민 사관에 대한 반박이라는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의 틀 안에 있었다. 서인도 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연극을 꿈꿨던 월컷은 『앙리 크리스토프』를 통해 카리브의 영웅, 곧 고전적인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웅들과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나는 조속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티 역사 속의 마니교적 분쟁에 이끌렸다. 내 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데살린이나 크리스토프와 같이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낸 영웅은 없었다. [...] 이러한 영웅들은 그들의 위대함, 광기, 그리고 위대한 이단자들의 불을 지녔다.” 21) 이 연극은 셰익스피어 햄릿(3막 3장)의 대사로 시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초월한 위대한 개인으로서 데살린과 크리스토프, 두 주인공의 영웅적인 흥망성쇠를 그려낸다. 월컷은 유럽의 영웅들에 매혹되었으며, 이는 언어, 구절 형식, 동작에서 유럽의 웅장한 연극 스타일에 대한 매혹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첫 희곡에서 표현한 영웅주의적 비극 서사가 근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나중에 반성하게 된다. “첫 시와 희곡은 사생아가 아버지의 가정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입양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22)

『앙리 크리스토프』는 투생이 프랑스 감옥에서 사망한 이후부터 크리스토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아이티 혁명을 다룬다. 이 연극은 아이티가 독립한 후 지배자로 나선 두 인물, 먼저는 데살린 그리고 그가 암살된 후에는 크리스토프를 주축으로 전개된다. 연극에서는 화자에 따라 역사라는 용어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데, 크리스토프의 대사를 통해 역사와 영웅이 암묵적으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보인다. 여기서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닌, 비인격적이면서도 위대한 존재, 일종의 메타 영웅으로 묘사된다. 크리스토프에게 역사는 동료이자 자신과 쌍둥이

21) Walcott, *What the Twilight Says*, pp. 10-13.

22) Derek Walcott, *Dream on Monkey Mountain and Other Play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0), p. 31.

존재로, 그의 자만심은 이러한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의식에서 기인한다. “나는 모든 왕보다 더 풍요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I will make history, richer than all kings)” “역사, 바로 내가 그들에게 무정부주의를 외치도록 악을 준 것이다 / 왕에 대항하여 (It is I, who, history, gave them this vice to souht anarchy / Against King)”²³⁾ 이 대사들에서 ‘역사’라는 단어의 모호함은 그와 추정되는 관계의 본질을 강조한다. 역사는 호격(크리스토프가 역사를 호명하고 있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나(크리스토프 자신을 역사로 빗대고 있음)와 동격으로 읽을 수도 있다.²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연극에서 크리스토프는 중심적인 인물로 다루어진다. 그의 내면은 숨길 수 없는 야망과 투쟁이 제시한 원칙 사이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단순하고 과격한 데살리나 대비하여 그를 양심에 반하는 결정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복잡한 캐릭터로 만든다. 크리스토프는 고전적인 비극의 영웅처럼, 거의 불가능한 싸움에 도전한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의 노력으로 수천 명의 노예가 자유를 얻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전 비극의 전형적인 요소처럼, 크리스토프의 추락은 그의 영웅적인 덕목과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악마적인 본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아이티 국민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티를 재정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위대함과 동시에 오만함을 드러낸다. 크리스토프는 자기 말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내 안에 흐른다.” “나는 성을 지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워, 내가 일하고 성장시켰다 / 이 나라를 그 위상에 걸맞게.”²⁵⁾ 크리스토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집착과 왕국 및 자신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요새, 성을 건설하려는 욕구로 인해 결국 몰락한다. 연극에서 크리스토프의 비서인 바스티는 반란군이 왕궁을 공격할 때 왕에게 탄식한다. “여기 새로운 왕과 또 다른 대주교 / 역사의 단조로움... / 우리는 끝났습니다. 폐하 / 우리는 성공의 비극이었습니다.”²⁶⁾ 크리스토프의 몰락이 진정 비극적인 이유는 그의 실패가 성공을 가져온 그의 특성과 조건에 의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23)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p. 62, 101.

24) Baugh, “Of Men and Heroes,” p. 48.

25)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p. 68, 74, 91.

26)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103.

『앙리 크리스토프』는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 아래 등장한 영웅적 저항 서사로, 1930년대 제임스의 연극이나 세제르의 시와 맥을 같이하지만, 비극적인 서사 방식을 택함으로써 차별화된다. 예컨대, 제임스의 『투생 루베르튀르』는 반식민주의 승리를 담보하는 ‘혁명적 로망스’로, 아프리카 흑인이 영웅적 주체로서 겪는 억압, 저항, 고난,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서사를 통해 식민 사관의 논리를 부정한다. 이러한 승리 서사에서 투생 루베르튀르나 앙리 크리스토프와 같은 혁명 지도자들은 흑인 노예가 자유와 자결의 권리를 가진 근대적 주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앙리 크리스토프』는 17세기 영국 자코빈 시대의 궁중 비극에서 영감을 받은 서사 구조로 되어 있다. 월컷은 아이티의 역사와 그 지도자들을 자코빈 비극(Jacobean tragedy)의 가혹하고, 폭력적이며,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²⁷⁾ 그의 작품 속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는 영웅적인 면모를 지녔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스스로와 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접근은 유럽 열강의 위협과 신식민주의적 상황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고,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를 역사적 진공 속에서 판단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식민지 근대성의 제도적 압력은 작품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월컷이 1958년에 발표한 그의 두 번째 작품인 『복과 색』은 아이티 혁명을 같은 주제로 하면서도, 혁명적 로망스의 구조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 작품에서 아이티 혁명은 여전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서인도 연방의 결성이라는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전체 서사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월컷은 이 작품을 통해 인종적·지역적 긴장을 극복하고 통합된 서인도 연방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강조한다.

당시 서인도 연방의 결성을 주도했던 카리브의 크리올 민족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 칼라일과 프루드와 같은 제국주의 지식인의 인종주의를 비판한 흑인 지식인 J. J. 토마스(J. J. Thomas)의 고독한 지적 대응에서 시작했다.²⁸⁾ 크리올 민족주의 운동은 1920-30년대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노동자의 파업과 연대 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자

27)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pp. 139-140.

28) Denis Benn, *The Caribbean Intellectual History, 1774-2003* (Kinstong: Ian Randle Publishers, 2004), pp. 65-102.

치와 민주주의의 확대, 카리브 연방의 형성 등을 요구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메이카의 노먼 맨리(Norman Manley)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를 중심으로 가장 전투적인 면모를 갖추고 서인도 연방 건설을 통한 정치적 독립을 추진했다.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크레올 민족주의는 영국의 식민 지배와 인종주의가 오히려 카리브 국민의 단합과 번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타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리브 주민은 유럽 지배 문화의 지역적 전유나 아프리카 기원 피지배 문화와의 혼합, 즉 크리올화(creolization)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 자치 능력을 가진 하나의 국민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월컷의 연극은 당시 많은 사람이 카리브의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낙관주의와 희망을 반영했다. 『북과 색』은 서인도 연방의 다양한 주민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시멘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제작되었다. 연극의 교육적 속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카리브 국민 사이에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여겼다. 또한, 연극이 카리브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대 지식인들의 일반적 생각도 반영했다. 세제르는 독립이 제기한 새로운 정치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 연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²⁹⁾ 연극 무대는 해방된 국민의 문화적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고 정치적 각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국민 개개인의 자의식을 키우고, 정치적·사회적 의식 수준을 높이는 '정신 혁명(revolution of mentalities)'으로 이끄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 월컷을 포함하여 글리상, 세제르, 제임스 같은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은 아이티 혁명에 관한 연극을 저술하고 여러 지역에서 공연했다.

연극의 무대 설정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국기와 함께, 아프리카 북과 연대 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프리카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서인도 연방 국가의 탄생을 상징한다. 연극은 카리브 제도, 특히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다양한 인종적 역사를 상기시키는 카니발 축제로 시작한다. 축제의 주최자이자 연극의 등장인물인 마노는 자신의

29)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 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호모미그란스』, 20(2019), 152-153쪽.

공연을 돕기 위해 “람, 폼페이, 예트, 유”를 호출한다. 마노와 예트는 아프리카계 카리브인으로, 람과 유는 각각 인도와 중국계임을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연극의 후반부에서는 스페인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온 유대인, 스페인계와 타이노계 혼혈인 파코, 그리고 아이티에서 아이티 농장주와 노예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적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안톤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월컷의 연극은 영국령 서인도 제도 중에서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한 세 지역, 바로 트리니다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다. 트리니다드에서는 '롤리의 마지막 탐험'이, 자메이카에서는 1830년과 1833년 노예제 폐지 직전 상황과 1865년 모란트베이 반란이, 바베이도스에서는 품격 있는 바베이도스 선원과 무질서한 영국 선원의 유쾌한 만남이 펼쳐진다. 히스파니올라섬은 서인도 연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콜럼버스의 정착지이며 '역사상 유일한 성공적인 노예 반란'으로 평가받는 아이티 혁명의 배경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이 연극을 구성하는 사건들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식민지화·크리올화·탈식민지화라는 단일한 카리브 역사의 흐름을 따라 다양한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며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앙리 크리스토프』에서 보이는 영웅주의 저항의 서사는 『북과 색』에서도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서사의 초점에 변화를 주어 계몽된 영웅과 야만적인 영웅이 대비된다. 전자는 투생이 프랑스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작하는 반면, 후자는 르클레르 프랑수아 원정대 사령관이 생도밍고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막을 올리고, 데살린과 크리스토프가 투생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에서 마무리된다. 『앙리 크리스토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투생이 『북과 색』에서는 등장인물로 활약하며, 이성적인 지도자이자 건설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극은 투생을 통해서 야만적인 영웅주의와 대조되는 지적인 지도력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를 잔혹하고 야심 넘치는 장군의 이미지로 단순히 처리하고, 투생에게 초점을 맞춘다. 투생은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더 복잡하고 이성적이며 성찰적인 지도자상을 표현한다. 그는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 단순한 복수로 변질되는 것을 거부하는 계몽된 지도자다. 데살린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력 사용을 반대하며, 투생은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평화, 불탄 영지의 복구, 궁극적인 / 전쟁이 파괴

한 이 마을의 재건, 평화는 더 어렵다.” 라고 말한다.³⁰⁾ 투생은 복수가 아닌 ‘평화’와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연극은 카리브 사회 발전에 있어 위대한 영웅뿐만 아니라 민중의 역할도 강조하며 수 세기에 걸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월컷은 민중에게 인기 있는 공연 양식인 카니발 축제를 활용하여 카리브의 특성을 더욱 부각한다. 프롤로그는 마노가 이끄는 카니발 밴드의 연주로 시작되는데, 이 밴드는 유럽 고전 영웅 전통을 패러디하는 칼립소(Calypso) 가수 폼페이를 포함한다.³¹⁾ 역사적 사건을 카니발의 보통 사람들이 재연함으로써, 연극은 웅장한 역사적 서사를 풀뿌리 전통을 통해 재해석한다. 연극의 마지막에는 카니발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여 폼페이를 기리는 기도와 함께 마무리된다. 이때 폼페이는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그의 중요성은 역사상의 어떤 영웅 못지않게 강조된다. 폼페이가 죽었을 때 마노의 기도에서 그는 “이 땅에 중요한 한 조각이나, 영웅은 아닌 / 그러나 폼페이... 성미가 급한 제화공 폼페이 상병, / 그러나 폼페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여느 영웅 못지않게 위대” 하다고 찬양받는다.³²⁾

아프리카계 영웅의 반란과 저항 서사,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카니발 축제를 통해 서인도 연방의 인종 통합과 국민적 비전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던 월컷의 시도는 카리브 독립을 이끌었던 크레올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기대를 반영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만든 지역 공통의 정체성을 중요시한 맨리와 윌리엄스의 크리올 민족주의 운동은, 영국 식민 지배에 도전하면서 카리브의 혼성 문화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서인도 연방과 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이 운동은 인종적 정체성을 토대로 삼아 흑인 국가의 건설과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했던 흑인 민족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월컷 또한 자기 작품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 인도계, 중국계 등 다양

30)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241.

31) 칼립소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니발에서 기원한 음악 장르이다. 이 음악은 19세기 후반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리듬과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발전시켰다. 칼립소는 경쾌하고 율동적인 비트가 특징이며, 동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풍자하는 노래 가사를 종종 담았다. 하영준, 「“호모 루텐스”의 탈식민주의: 서인도 식민지의 크리켓과 카니발 문화」, 『호모미그란스』 22(2022), 18-19쪽.

32)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289.

한 카리브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려 시도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된 다인종 크리올 문화를 통해 카리브해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월컷의 예술적 지향과 카리브 크레올 민족주의의 탈식민화 전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서인도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 이후 크레올 민족주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면서 월컷의 문제의식에서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가져온 광범위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V. 탈식민주의와 비극적 민중 서사

1979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84년에 완성된 『아이티 대지』는 월컷의 인식에서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나이폴(V. S. Naipaul)의 『중간 항로(The Middle Passage)』가 이념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나이폴은 2021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계 카리브 출신 작가다. 『중간 항로』는 영국으로부터 갓 독립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가 카리브 지역을 여행하며 1962년에 쓴 여행기이다. 이 저작에 담긴 카리브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칼라일과 프루드를 연상시킨다. 나이폴은 앞서 언급한 프루드의 글 마지막 부분을 자신의 책 서문에 인용했으며, 그 논조를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서인도의 무가치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역사는 어떤 어조를 취해야 할까? [...] 역사는 성취와 창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서인도 제도에서는 창조된 것이 없다.” 나이폴은 카리브 역사의 부재가 카리브 국민성의 결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종, 종교, 집단 그리고 파벌 출신이었고, 어쩌다 보니 같은 작은 섬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 공동 거주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족주의 감정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었다. 깊은 반제국주의 감정도 또한 없었고,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영국적인 것, 우리가 대영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뿐이었다.”³³⁾

나이폴의 카리브 사회 비판은 새로운 논쟁을 일으켰다. 그의 글은 칼라일

33) V. S. Naipaul, *The Middle Passage: The Caribbean Revisited*(1962) (New York: Vintage Books, 2002), pp. 20, 36.

과 프루드의 인종주의적 식민 사관과 같지 않았다. 나이폴은 카리브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착 지식인이라는 내부자의 시선에서 카리브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과장이 컸다. 그러나 나이폴의 글이 지속해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내부자적 시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글이 등장한 정치적·이념적 공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인도 연방을 통한 독립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개별 독립한 카리브 국가들은 1960-70년대에 심각한 사회 위기와 갈등을 겪었다. 이런 ‘탈식민’ 위기 상황에서 카리브 역사와 국민성에 대한 나이폴의 부정적 평가는 역사적 사실로, 예를 들어 아이티 혁명의 기억으로 단순히 반박될 수 없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아이티 혁명을 기억해 왔던 방식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인식론적인 의문을 품게 했다. 다르게 말해서, 탈식민화의 위기는 카리브의 역사와 국민성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사고를 요구했다.

카리브의 ‘탈식민적’ 위기 상황은 월컷의 두 번째 연극 『북과 색』이 개원을 축하했던 서인도 연방 의회의 해체로 시작되었다. 크리올 민족주의자들은 서인도 연방의 창설을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미국의 강화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규모가 큰 섬과 작은 섬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및 아프리카계와 인도계 이주민의 인종적 갈등 등으로 서인도 연방을 통한 독립이라는 원대한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1962년,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1966년 가이아나와 바베이도스가 개별적으로 독립을 했다.

서인도 연방이 해체된 후에도 카리브 국가들은 크리올 민족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국가 신조를 채택했다. 자메이카는 “다민족, 하나의 국민(Out of Many, One People)” 을,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함께 열망하고 함께 성취한다(Together We Aspire, Together We Achieve)” 가이아나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운명(One People, One Nation, One Destiny)” 을 자국의 신조로 선언했다.³⁴⁾ 이러한 국가 신조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국민에게 인종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다인종·다문화적 크리올 정체성을 국가적 토대로 구축하려던

34) Eric D. Duke, *Building a Nation: Caribbean Federation in the Black Diaspora*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6), pp. 261-262.

이들 나라의 노력은 현실 속 인종 갈등에 부딪혀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었다.

크리올 민족주의는 양방향에서 저항받았다. 카리브 인구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인도계 주민들은 크리올 민족주의를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독립 이후 아프리카계 주민의 역사와 경험이 국민 문화를 지배하면서 과거 식민지 사회에서 그들이 겪었던 소외와 배제가 재현되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아프리카계 주민 중에서도 흑인 민족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크리올 민족주의가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인종 차별을 변형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는 환상을 통해 백인 유럽 문화의 우월성은 받아들이고 아프리카 문화와 유산은 냉대하면서, 아프리카계 주민이 자신의 주체성을 긍정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월컷의 예술 활동도 유럽 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나이폴의 고향이며 월컷이 수십 년간 예술 활동을 했던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이러한 인종 갈등이 특히 심각했다. 『자본주의와 노예제(Capitalism and Slavery)』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윌리엄스는 크리올 민족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인 ‘민중민족운동(Peoples National Movement)’을 창립하고 독립을 이끌었다. ‘민중민족운동’은 인종 화합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지만, 아프리카계 주민의 지지에 기반한 정당이었다.³⁵⁾ 의회 내의 다수당이 되기 위해 인도계 주민에 대한 인종 적대감을 조장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자주 취했다. 아프리카계 주민의 배타적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고 윌리엄스는 국가 수상으로서 장기 통치를 했다. 인도계 힌두 성직자와 엘리트들이 창립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치 상황에 불만을 가진 인도계 주민의 지지받으며 결성되어 야당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정치 구조는 인종 간의 분열과 대립을 고착시키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립 후 본격화된 인종 갈등과 정치적 적대감은 과거 식민지 사회로부터

35) 196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아프리카계가 43.3%를 차지했고, 인도계는 36.5%, 혼혈 16.3%, 유럽계 백인 1.9%, 그리고 중국계 1%였다.

물려받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체제 위기로 이어졌다. 흑인이 정치권력을 잡았지만,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인종 차별이 지속되었다. 민간 기업과 사적 영역에서 백인 우대 정책과 피부색에 따른 고용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경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본이 국내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고 청년 실업률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청년·학생·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변화와 개혁을 갈망했다. 1965년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노동 분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윌리엄스 정부는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려 했으며 이들의 배후로 제임스를 의심하여 가택 연금을 했다. 그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윌컷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물리적인 정치적 항의”를 했다. 그는 윌리엄스 수상이 타고 있던 관용차에 다가가 “제임스를 석방하라”를 외쳤다.³⁶⁾

1970년에는 윌리엄스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블랙 파워 운동이 부상하여, 윌리엄스 체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블랙 파워 활동가들은 윌리엄스를 ‘화이트 파워’와 협력하는 ‘아프로-색슨 모방자(Afro-Saxon imitator)’나 ‘제국주의의 흑인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다. 미국 블랙 파워 운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지만, 카리브 블랙 파워 운동의 근본은 카리브 지역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흑인 민족주의에 있었다. 흑인 민족주의는 흑인의 인간성과 자치 능력을 부정하는 영국 제국주의에 맞선 반식민주의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크리올 민족주의와 함께 등장했다.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흑인의 인간다움과 주체성을 옹호했고 아프리카로의 귀향과 인종적 정체성에 기초한 흑인 국가의 건설을 추구했다. 따라서 지역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다인종·다문화적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크리올 민족주의와 이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올 민족주의가 카리브 독립의 주도권을 쥐면서 흑인 민족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종교 형태로 생명력을 유지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에티오피아 황제 하릴레 셀리시에 1세를 신으로 모시고 아프리카 귀향을 염원하는 종교인 ‘라스타파리(Rastafari)’ 운동이 흑인 하층계급 사이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³⁷⁾ 라스타파리 운동은 아프리카 문화를 기반으로 유럽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대

36) Walcott, “A Tribute to C. L. R. James,” pp. 43-44.

37) Benn, *The Caribbean Intellectual History*, pp. 231-264.

항 문화적 성격을 발전시켰다. 해외에서는 카리브 이주민들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한 급진적 범아프리카주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급진적 범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로의 귀향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대신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과 인종적 억압으로부터 전 세계 흑인의 해방을 목표로 삼았다. 1930년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페드모어(George Padmore)와 제임스가 런던에서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는 범아프리카주의 국제조직을 최초로 결성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일어난 1970년 ‘2월 혁명’은 이러한 흑인 민족주의의 두 흐름을 계승하고 종합했다. 청년과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 노동자들도 ‘블랙 파워’ 이념에 따라 사회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던 혁명에 동참했다.³⁸⁾ 비록 혁명은 단명했지만, 그 이후에도 카리브 사회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윌컷은 블랙 파워 운동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처음으로 대중이 집단적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프리카 중심주의와 인종 기반의 문화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 유럽 문화나 다른 문화를 배격하는 태도에 개인적·예술적 우려를 느꼈다. 블랙 파워의 이념은 자기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섰듯 보였다. 윌컷에게 자기 정체성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문화로부터 ‘오염’을 꺼리는 인종 본질주의와 인종 차별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다.³⁹⁾ 따라서 크리올 민족주의의 좌절과 블랙 파워 운동의 부상이라는 독립 이후 정치적·이념 지형의 변화 속에서, 윌컷은 카리브의 역사와 국민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탈식민화의 위기를 예술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이 점은 인종적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크레올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블랙 파워 활동가들의 이념에 대한 윌컷의 우려와도 암묵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나이폴이 제기한 “이 서인도의 무가치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유럽) 영웅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청년 시절의 동경에서 벗어났다. 윌컷이 1979년 쓰기 시작해서 1984년에 완성한 세 번째 희곡, 『아이티 대지』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38) Jerome Teelucksingh, “The Black Power Movement in Trinidad and Tobago,” *Black Diaspora Review*, 4-1(2014), pp. 157-186.

39) Walcott, *What the Twilight Says*. p. 57; William Baer ed., *Conversation with Derek Walcott*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6), pp. 166-167.

『아이티 대지』는 이전의 두 작품과는 달리 아이티 혁명 전체를 아우르는 유일한 연극이다. 이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영웅 중 투생이나 크리스토프가 아닌, 허구적인 해적 모습의 데살린에서 시작한다. 해변에서 홀로 서 있는 데살린은 멧돼지의 공격을 받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쓰러뜨리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친구여, 신이 너를 신호로 보낸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지. 내 이름은 데살린이다. 장 자크 데살린.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프랑스 돼지를 저 바다로 몰아내고 말 거다. 그리고 이 해변에 돌아왔을 땐 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다. 다음에 날 만나게 된다면 난 왕일 거다! 언덕과 바다가 내 이름으로 울려 퍼질 거다. 데살린! 데살린!”⁴⁰⁾

아이티 혁명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투생의 영웅적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제임스의 『블랙 자코뱅』이나 글리상의 『무슈 투생』의 연극에서도 마찬가지다. 데살린은 조연으로 등장하여 투생의 혁명을 계승하거나 왜곡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아이티 독립 이후의 역사를 다룬 작품은 예를 들어 세제르의 『크리스토프와의 비극』과 월컷의 첫 연극 『앙리 크리스토프』처럼 크리스토프를 중심으로 그의 북부 왕국과 페티옹의 남부 공화국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티 영웅들의 연대기와 상징적 위계에서 데살린은 투생 다음으로 두 번째, 심지어 크리스토프 뒤에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아이티 혁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데살린이 중심 무대를 차지한 적은 거의 없다. 물론, 이것은 역사와 문학에서 그려진 방식이며 아이티 민중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데살린은 아이티 혁명 영웅 중에서 유일하게 부두교의 신 반열에 오른, 민중 친화적인 인물이다.⁴¹⁾ 데살린이 역사나 문학에서 부차적인 인물로 그려진 이유는 잘 알려진 그의 잔인한 폭력성과 관련이 있다. 데살린에 관한 묘사의 대부분은 인종적 증오, 맹목적인 폭력, 무분별한 백인 학살과 관련된 그의 오명을 반영한다. 그러나 월컷의 『아이티 대지』에서 데살린은 조연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심 무대를 차지한다. 이는 월컷의 이전 작품과도 다른 점이다.

연극이 데살린을 중심 무대에 세운 것은 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데살린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면

40)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p. 302-303.

41) Joan Dayan, *Haiti, History, and the Go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17.

서, 이를 아이티 혁명과 영웅주의 저항 서사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하고 있다.⁴²⁾ 월컷에게 데살린은 더 이상 유럽의 위대한 영웅 서사에 대응되는 식민지 저항 서사의 비극적 주인공이 아니다. 영웅주의 저항 서사에 내재한 권위주의와 맹목적 폭력성을 극단적 형태에서 대변하는 인물일 뿐이다. 영웅주의 저항 서사는 역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폭력적으로 배제했다. 남성 영웅의 권위 있는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 유럽 영웅주의 식민사관을 단순히 뒤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복과 색』에서 보이는 계몽된 영웅(투쟁)과 야만적 영웅(데살린과 크리스토프) 사이를 대비하는 서사 방식도 월컷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아이티 혁명과 영웅주의 저항 서사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아야 했다. 월컷은 아이티 독립을 역사적 성취로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영웅주의 저항 서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아이티 혁명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월컷은 역사의 부재를 영웅주의 저항 서사로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카리브 국민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환영한다. “카리브에서 역사가 무의미한 것(nothing)은 그것이 창조되지 않았거나,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상실, 인종의 기억 상실이며, 필요한 것은 상상력, 필요성으로서의 상상력, 발명으로서의 상상력이다.”⁴³⁾ 월컷은 영웅주의 식민사관을 넘어서 역사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한다. 그에게 역사는 유럽 중심의 선형적이고 연대기적 서사로서, 카리브 사람들을 돌로 만드는 ‘신대륙의 메두사’였다. 카리브 원주민들은 유럽의 정복으로 대거 몰살당했고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은 식민주의 세력에 의한 강요된 노예화와 이주의 충격을 겪었다. 그러나 유럽 중심의 역사는 이러한 카리브 과거에서 비롯된 불연속과 단절 그리고 기억 상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카리브 과거를 유럽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의미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고, 카리브 주민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월컷은 카리브 국민에게 강요된 역사의 부재(기억 상실)를 자유로운 상상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월컷은 강요된 역사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대한 원한이나

42) Figueroa, *Prophetic Vision of the Past*, pp. 130-134

43) Walcott, “The Caribbean: Culture or Mimicry?”, p. 6.

분노만을 품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식민지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탈식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는 과거가 있다. 복수의 욕구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것으로 노예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다. 여기에 나이폴과 프루드 모두에 대한 답이 있다.”⁴⁴⁾ 카리브는 원주민의 대량 학살, 강제 이주, 식민 지배, 인종 차별 등 충격적인 역사를 겪었다. 월컷은 이러한 과거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분노와 비난에 머무르는 것은 탈식민화의 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본다.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는 긴 신음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싸우면서 현재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변의 과거에만 매달리면 식민주의의 트라우마만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억압받는 집단이 인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월컷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예제도와 식민주의의 잔혹함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화적 융합과 창의성에 주목하고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발견한다. 아메리카 원주민, 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의 영향이 뒤얽힌 카리브의 풍부한 문화적 태피스트리를 칭송하며, 이 다양성이 카리브 사회의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한다. 월컷은 카리브 사람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자기 뿌리와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창조하고, 자긍심 있는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⁴⁵⁾

『아이티 대지』는 월컷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데살린과 크리스토프 같은 아이티의 혁명 지도자를 과거에 얽매인 인물로 묘사한다. 그들은 “분노에 찬 왕들”로 과거의 노예제도와 식민지 경험으로 얻은 상처와 증오를 극복하지 못한다.⁴⁶⁾ 데살린은 백인에 대한 강렬한 증오를 표현하며, 백인 학살을 정당화한다. 그는 과거 억압에 대한 복수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크리스토프 또한 과거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떨쳐낼 수 없다. 그는 백인 귀족 사회를 모방하며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과거의 권력 구조를 뒤집은 형태에서 재현하려 한다. 연극은 이들이 유럽 열강과 동등한 역사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독립

44) Baugh, *Derek Walcott*, p. 59. 재인용.

45) Walcott, *What the Twilight Says*, pp. 36-64.

46)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408.

이후에도 식민지 시대의 폭력과 억압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열망은 수 세기에 걸친 노예제도와 학대가 훼손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했다. 유럽처럼 문명화된 강대국을 건설하여 과거의 굴욕을 씻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노예 시절의 과거를 현재의 역사적 성취로 보상하려 하는 집착 자체가 식민주의 트라우마의 지속을 의미했다. 아이티의 지도자들 스스로 반대했던 식민주의 담론, 즉 흑인은 역사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열등한 존재라는 주장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들은 역사적 성취를 위해 자국민을 ‘왕’ 처럼 다스리며 권력을 추구했다. 연극의 마지막에서 폼페이가 지적했듯이, 자신과 국가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모두의 왕’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혁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잔혹한 폭군으로 이들을 만들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의 획득은 단순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아직 치유되지 못한 식민주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었다.

『아이티 대지』는 식민주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탈식민화의 희망은 아이티 대지와 그 대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복과 색』에서도 등장했던 가상 인물, 폼페이와 예트는 이제 카리브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역사 기록에서 간과되거나 잊힌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트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몰라토 매춘부로, 노예 반란 후 집을 잃고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이모가 남긴 작은 땅에서 농사를 시작한다. 그녀는 삶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폼페이는 노예 작업 반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유쾌한 허풍쟁이로 묘사된다. 예트와 폼페이는 사랑으로 함께 농촌 마을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꾸려간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원한과 분노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화해와 용서를 추구한다. 이들은 연극이 묘사하는 아이티 통치자들과 달리, 인종적 편견과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통합된 미래를 위한 잠재력을 가진다. 공유된 경험과 웃음을 통해서 인종 차별과 대립으로 얼룩진 비극적 과거에서 벗어나 평등한 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연극은 “나는 시작이며, 나는 끝이다. 아이티는 나 자신이다.” 라는 데살린의 선언과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아이티야, 예트” 라는 폼페이의 말을 병치하며, 이를 강조한다.⁴⁷⁾

『아이티 대지』는 민중의 목소리를 통해 포용의 정치가 실현될 방안을 탐색한다. 폼페이와 예트가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야기와 폼페이가 자신이 겪은 고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포용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아이티의 역사를 지배한 식민주의 논리에 맞서며, 폼페이는 투쟁의 이상을 떠올린다. “그때 늙은 마부 밑에서 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대화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각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각 사람을 자기 왕으로 만들 것인가이었습니다.”⁴⁸⁾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상징한다. 폼페이가 ‘각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자기 왕으로 만드는’ 이상을 제시할 때, 그는 계급·인종·성별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타자를 수용하는 포용의 정치를 암시한다.⁴⁹⁾ 포용은 위로부터 주어질 수 없다.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는 통치자로서 나폴레옹만큼이나 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백인과 혼혈인을 학살했으며 흑인 사회 내부에서도 계급 불평등과 성차별을 유지했다. 이는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인종·계급·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몰라토 하층 여성 예트는 인종·계급·성별이라는 삼중의 차별에 놓여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특히 혼혈 여성으로서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가 부각된다. 폼페이는 흑인 통치자도 유럽 백인 농장주만큼이나 신식민주의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인종·계급·성별 등의 범주가 어떻게 특정 개인을 배제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깨닫게 된다. 여기서 연극이 암시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배제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배제와 억압이 어떻게 작동하고 정당화되는지를 인식하고, 소외된 주체를 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이티의 통치자들, 데살린과 크리스토프는 민중의 고통과 소외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인물이다. 데살린은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트를 성폭행한다. 크리스토프는 데살린을 암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 거대한 요새, 시타텔 라페리에르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아이티 농민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이들의 폭정에 좌절과 고통을 겪은 예트는 보두(vodou) 의식을 통해 크리스토프를 저주하여

47)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p. 386, 426.

48) Walcott, *The Haitian Trilogy*, p. 431.

49) Figueroa, *Prophetic Vision of the Past*, p. 164.

몸을 마비시킨다. 결국, 저주가 발각되어 예트는 처형당하고, 폼페이는 그녀를 아이티 대지에 안장한다. 예트의 비극적 운명과 폼페이의 절망적 호소는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지 폭력과 억압을 강조한다. “제 인생은 긴 밤입니다. 제 나라와 당신의 왕국, 폐하, 참으로 긴, 긴 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한 것이 왕들입니다...” “제가 언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요? 당신들 모두 아래에서.”⁵⁰⁾ 월컷은 이러한 민중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아이티 혁명의 영웅들이 과거에 얽매어 민중의 고통을 간과하고, 식민지 시대의 폭력적 관행을 재생산함으로써 아이티의 미래 발전과 포용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크레올 민족주의의 좌절과 블랙 파워의 등장으로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거친 이후, 월컷은 영웅주의 식민사관뿐만 아니라 연대기적이고 선형적인 역사 자체를 카리브 국민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럽 중심적인 것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역사가 강요한 부채를 위대한 영웅의 성취로 만회하려는 반식민주의 담론과 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싸우면서 식민주의의 폭력과 억압을 반복할 뿐이었다. 월컷은 이러한 시각에서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영웅 서사로 재현했던 것에서 벗어나 민중적 비극 서사로 재해석했다. 월컷은 엘리트 계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며, 탈식민화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들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독립적인 사고와 식민주의적 영향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또한, 카리브 사회의 인종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범주를 넘어서 자신의 문화적 혼종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의 실현이 진정한 자유를 달성하는 데 필요했다. 월컷은 아이티 혁명의 영웅들을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비극적 인물로 묘사하며, 이들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대립과 폭력을 재생산하면서 아이티 민중이 보여준 미래 발전과 포용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막았다고 지적한다.

월컷의 『아이티 대지』는 아이티 혁명에 대한 비극적·비판적 시각으로 카

50) Wallcott, *The Haitian Trilogy*, pp. 431-432.

리브의 역사와 국민성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이해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혁명과 그 지도자들의 환원론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로 유럽 중심적 담론의 오류를 반복하는 한계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월컷은 과거의 사건을 선형적인 연대기로 구성하는 역사 자체를 유럽 중심적인 것으로 비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티 혁명에 대한 기존의 유럽 중심적 설명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유럽 중심적 설명에 기반하여 아이티 혁명을 ‘실패’로 단정 짓고, 혁명 지도자들을 잔혹하고 무능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조건과 사고 지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 중심적 설명은 칼라일과 프루드의 경우처럼 인종주의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컷은 아이티의 문제를 내부적 요인에만 국한하고 식민 지배의 유산이나 유럽 열강의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경시했다. 그 결과, 아이티의 고난을 모든 식민지가 겪었거나 겪게 될 보편적 문제가 아닌, 아이티만의 예외적인 특수성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아이티를 ‘비정상’로 규정하는 참조의 기준, 즉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 지식인의 사고 지평을 규정했던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연극에서는 아쉽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월컷의 이러한 한계는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유럽 중심적 설명에 도전하고, 이를 (서구적) 근대성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장했던 글리상, 세제르, 제임스와 같은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하다.⁵¹⁾

월컷의 작품은 아이티의 일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혁명에 참여한 평범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하며 혁명의 역사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연극에서 영웅과 민중의 관계는 대립적으로만 묘사되며, 민중은 혁명의 직접적 참여자가 아닌, 혁명으로 발생한 억압과 폭력의 피해자로만 그려진다. 연극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티 민중의 경험을 배제하고 그들의 투쟁을 무시한다. 이는 아이티 민중을 혁명과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아이티 혁명 지도자의 전망을 비판했던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접근과 비교되는 월컷의 또 다른

51) 하영준,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호모미그란스』, 27(2022), 174-184쪽.

한계이다. 이들은 지도자와 민중의 협력적 긴장 관계를 주목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탈식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월컷은 노예제와 식민 지배의 잔혹한 과거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연극에서 용서와 화해는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탈식민화의 중요한 과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월컷은 다문화적이고 다 인종적인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국민 문화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소외, 그리고 국가 자원 접근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고 통합의 이상만을 말하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크리올 민족주의 운동이 독립 후 인종 화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블랙 파워 운동이 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월컷이 이야기하는 포용과 통합은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를 간과하며 인종 간, 인종 내 불평등과 특권층의 성장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⁵²⁾

그러나 월컷이 강조하는 노예제와 식민 지배의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의 필요성은 용서의 조건과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이바지한다. 월컷은 용서를 억압받은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노예제와 식민 지배의 상처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용서는 이러한 과거를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 보고 그 용서 불가능성을 통해 더 깊은 인간적 이해와 연대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컷은 용서와 화해가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하는 심오한 도전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더 평화롭고 통합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hayoungj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데릭 월컷(Derek Walcott), 아이티 혁명(Haitian Revolution), 아이티 삼부작

52) Shalini Puri, *The Caribbean Postcolonial: Social Equality, Post/Nationalism and Cultural Hybridity* (Pgrave Macmillan, 2004), p. 69.

(Haitian Trilogy),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ies),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투고일: 2024. 4. 25. 심사일: 2024. 5. 12. 게재확정일: 2024. 5. 13.

〈국문 초록〉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카리브의 탈식민주의 사상:
데릭 월컷의 『아이티 삼부작』 연구를 중심으로**

하 영 준

이 연구는 데릭 월컷(Derek Walcott, 1930-2017)의 아이티 혁명에 대한 역사극, 『아이티 삼부작(Haitian Trilogy)』을 카리브 탈식민화와 연관된 기억의 정치로서 분석하면서, 이를 동시대 다른 카리브 흑인 지식인의 아이티 혁명을 다룬 희곡들과 비교한다. 『아이티 삼부작』은 『앙리 크리스토프(Henri Christophe: A Chronicle in Seven Scenes, 1950)』, 『북과 색(Drums and Colours: An Epic Drama, 1958)』, 『아이티 대지(The Haitian Earth, 1984)』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부터 1984년까지 약 35년에 걸친 아이티 혁명에 대한 월컷의 반복된 재현은 카리브의 진정한 탈식민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월컷의 연극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며, 그 작품들을 통시적·역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월컷의 작품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제 공간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월컷의 초기 두 작품, 『앙리 크리스토프(1949)』와 『북과 색(1958)』은 국내외적으로 식민지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반식민주의 문제 공간에서 등장했다면, 『아이티 대지(1984)』는 1960년대 카리브의 국가들이 독립 이후 공통으로 겪었던 위기에서 초래한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과 관련된다. 이러한 반식민주의에서 탈식민주의로의 전환은 (식민지) 근대성과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했다. 이 연구는 아이티 혁명을 주제로 한 다른 카리브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월컷의 작품이 보여주는 탈식민주의적 전환의 의미와 내용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Abstract>

**Haitian Revolution and the politics of Memories in the Caribbean
: Studying on Derek Walcott's *the Haitian Trilogy***

Ha, Young Jun

This study analyzes Derek Walcott's (1930–2017) historical drama about the Haitian Revolution, *the Haitian Trilogy*, as a politics of memory related to Caribbean decolonization. It compares Walcott's work to plays about the Haitian Revolution by other contemporary black Caribbean intellectuals. *The Haitian Trilogy* consists of *Henri Christophe: A Chronicle in Seven Scenes* (1950), *Drums and Colours: An Epic Drama* (1958), and *The Haitian Earth* (1984). Walcott's repeated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35 years, from 1949 to 1984, can be seen as a politics of memory that seeks true decolonization of the Caribbean and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al ident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ical changes depicted in Walcott's plays and analyzes them from a diachronic and dynamic perspective. Walcott's works were creat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and problem-spaces. His first two plays, *Henri Christophe* (1949) and *Drums and Colours* (1958), emerged from the anti-colonial problem-space of ac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colonization movements. In contrast, *The Haitian Earth* (1984) is related to the postcolonial transformation of the problem-space that resulted from the crisis commonly experienced by Caribbean countries after independence in the 1960s. This shift from anti-colonialism to post-colonialism implied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olonial) modernity and subjectivity.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works of other Caribbean black radical intellectuals on the Haitian Revolution, this study sheds historical light o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is post-colonial turn in Walcott's work.

참고 문헌

1. 사료

- Walcott, Derek, (1949), “Henri Christophe,” *The Haitian Trilogy: Plays: Henri Christophe, Drums and Colours, and the Haitian Ear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 _____, (1958), “Durms and Colours,” *The Haitian Trilogy*.
- _____, (1964), “In Middle Passage, The James Version” (review of Black Jacobins), Sunday Guardian, 6 August 1964.
- _____, (1970), “ ‘What the Twilight Says’ : Dream on Monkey Mountain,” *What the Twilight Says: Essays* (New York: Farrar, Strus and Giroux, 1998).
- _____, (1974), “The Caribbean: Culture or Mimicry?,”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16-1(1974), pp. 3-13.
- _____, (1974), “The Muse of History,” *What the Twilight Says*.
- _____, (1984), “C. L. R. James,” *What the Twilight Says*.
- _____, (1982), “The Haitian Earth,” *The Haitian Trilogy*.
- _____, (1996), “A Tribute to C. L. R. James,” Selwyn R. Cudjoe & William E. Cain eds.,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5).

2. 단행본 및 논문

- 이영철, 「데릭 월콧의 예술적 정체성 - 다민족·다문화의 시학 -」, 『현대영미시연구』, 14-2(2005), 61-86쪽.
- 이영철, 「데릭 월콧(Derek Wallcott)의 탈영웅적 시학 - 호모(Homer)의

- 서사적 영웅에 대한 『오메로스(Omeros)』의 전복적 관점, 『현대영미시연구』, 14-2(2008), 103-123쪽.
- 이영철, 「데릭 월콧의 『후레자식의 귀향』과 칼립소」, 『현대영미시연구』, 11-1(2005), 119-142쪽.
- 이영철, 「데릭 월콧의 생태비평적 문제의식-카리브의 식민화된 자연과 역사-」, 『영어영문학연구』, 51-3(2009), 281-300쪽.
-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 C. L. R. 제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 」, 『서양사론』, 124(2015), 177-210쪽.
-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 『호모미그란스』, 20(2019), 143-183쪽
- 하영준,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를 중심으로」, 『호모미그란스』, 27(2022), 153-190쪽.
- Arnold, A. James., “Recuperating the Haitian Revolution in Literature: From Victor Hugo to Derek Walcott,” in Doris L. Garraway ed., *Tree of Liberty: Cultural Legac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8), pp. 179-199.
- Bloom, Harold, ed., *Derek Walcott*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 Baugh, Edward, “Of Men and Heroes: Walcott and the Haitian Revolution,” *Callaloo*, 28-1(2005), pp. 45-54.
- Bongie, Chris, “ ‘Montonies of History’ : Baron de Vastey and the Mulatto Legend of Derek Walcott’s Haitian Trilogy,” *Yale French Studies*, 107(2005), pp. 70-107.
- Burnett, Paula, *Derek Walcott: Politics and Poetics*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0).
- _____, *Nobody’s Nation: Reading Derek Walcot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Césaire, Aimé, (1961),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 _____, (1963),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 Dalleo, Raphael, *Caribbean Literature and the Public Sphere: From the Plantation to the Postcolonial*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1).
- Dayan, Joan, *Haiti, History, God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Figueroa, Victor, *Prophetic Vision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 Fumagalli, Maria Cristina, *Caribbean Perspectives on Modernit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9).
- Glissant, Édouard, (1961),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aris: Gallimard, 1988).
- James, C. L. R., (1936), *Toussaint Louverture: The Story of the Only Successful Slave Revolt in History, A Chronicle Play in 3 Acts*, [manuscript], No 275, Box 12,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 _____, (1963),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 O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New York: Vintage Edition, Random House, 1989).
- _____, (1967),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 Kaisary, Philip. & Mariana Past, “Haiti, Principle of hope: Parallels and Connections in the Works of C. L. R. James, Derek Walcott, Aimé Césaire, and Édouard Glissant,” *Atlantic Studies*,

17-2(2020), pp. 260-280.

Kaisary, Philip,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Léger, Natalie Marie, “ ‘A Tragedy of Success’ : Haiti And the Promise of Revolution,” A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2012.

Olanniyan, Tejumola, *Scars of conquest / masks of resistance : the invention of cultural identities in African, African-American, and Caribbean dram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uri, Shalini, *The Caribbean Postcolonial: Social Equality, Post/nationalism and Cultural Hybridity* (New York: Pgrave Macmillan, 2004).